

문화관광부장관상 주지현氏 受賞

제8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110팀 200여명 참가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지부장 이미숙)는 10월15일 오전9시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8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110개팀 200여명의 학생 및 일반인이 참가한 가운데 무대경험은 물론 무용예술 표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용예술의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문화관광부, 한국예총, 경기도, 한국무용협회, 국회의원,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예총이 후원했으며 포천신문이 협찬해 개최했다.

이날 대회 시상식에서 이미숙 대회장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작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대회를 후원기관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정혜윤(진주교방남거리춤 준보유자)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해가 갈수록 대회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무용 경연대회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무용전공인들은 더욱 열심히 실력을 연마하고 후원기관에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은 일반부 및 대학부에 참가한 주지현氏(부산시 다대동)가 차지했으며 각 부분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일반부 및 대학부 ▶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 주지현(부산시 다대동) ▶최우수상(예총회장상) 이지형(대전시 삼천동) ▶우수상(경기도지사상) 조혜정(서울시 수서동) ▶장려상(대회장상) 이윤경(전주시 송천동) ▶조영란(서울시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지부장 이미숙)는 10월15일 오전9시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8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석관2동) ▶고등부 한국무용 ▶최우수상(국회의원상) 홍혁현(김천 하우사 3년) ▶우수상(의정부문화원장상) 김혜운(산본고 2년) ▶김진주(충북예술고 2년) ▶장려상(대회장상) 고경선(의정부여고 2년) ▶이하나(군포용호고 2년) ▶정예현(서원고 2년) ▶이지영(구정고 2년) ▶고등부 외국무용 ▶최우수상(국회의원상) 강호정(부천심원고 3년) ▶우수상(의정부문화원장상) 김혜정(계남고 3년) ▶김미란의 7명(시온고3년) ▶장려상(대회장상) 박지연(부천북고 3년) ▶진보라(부천북고 3년) ▶윤자희(안산고 2년) ▶백송이(예일여고1년) ▶김미란(시온고 3년) ▶방소혜(광영고 3년) ▶우수상(의정부문화원장상) 이서희(산본중 3년) ▶우수상(의정부문화원장상) 이하늘(호원중 3년) ▶이진주(기흥중 3년) ▶장려상(대회장상) 박재원(연천중 2년) ▶김보경(부천북여중 2년) ▶권아림(의정부여중1년) ▶김슬기(포천대경중 2년) ▶최

하은(군포용호중 2년) ▶중등부 외국무용 ▶최우수상(국회의원상) 김빛하나(서울 신방학중 1년) ▶우수상(의정부문화원장상) 심현희(서울방학중 3년) ▶심현희 외 2명(서울방학중 3년) ▶장려상(대회장상) 정수진(호원중 2년) ▶정려림(금오여중 1년) ▶황운애(부천부일중 3년) ▶지정민(부천동여중 1년) ▶홍다슬(별내중 1년) ▶초등부 고학년 한국무용 ▶최우수상(의정부부시장상) 홍승표(부천 부흥초 5년) ▶우수상(의정부예총회장상) 남은영(군포육천초 6년) ▶김미수(사우초 6년) ▶장려상(대회장상) 정혜원(원풍초 5년) ▶김인지(선단초 5년) ▶이소초의 5명(신풍초 6년) ▶황혜림(대동초 5년) ▶초등부 고학년 외국무용 ▶최우수상(의정부부시장상) 신호정(부천 심곡초 5년) ▶우수상(의정부예총회장상) 박문보람(고강초 6년) ▶오신주(서울한신초 6년) ▶장려상(대회장상) 조은지(한천초 6년) ▶신현정(대명초 6년) ▶남기은(해양초 5년) ▶김

수현의 3명(별내초 6년) ▶손민희(솔기초 5년) ▶김수현(별내초 6년) ▶초등부 저학년 한국무용 ▶최우수상(의정부문화원장상) 승은지(군포육천초 3년) ▶우수상(의정부예총회장상) 승현지의 3명(군포육천초 4년) ▶김태희(호원초 2년) ▶장려상(대회장상) 김시현(군포당동초 2년) ▶김연재의 4명(회통초 3년) ▶한은미(김포초 4년) ▶박상현(계양초 2년) ▶장우정(대동초 4년) ▶초등부 저학년 외국무용 ▶최우수상(의정부부시장상) 이민경(부천 심곡초 4년) ▶우수상(의정부예총회장상) 죽다슬(의왕덕성초 2년) ▶김지운 외 6명(서울 창도초 3년) ▶장려상(대회장상) 이소초(신풍초 4년) ▶이숙영(금오초 3년) ▶최원익(신곡초 2년) ▶백세연(김포초 4년) ▶김혜림(해양초 2년) ▶지도자상(한국무용협회 이사장상) 박경남(부천시 원미구 중4동) ▶특별상(포천신문사장상) 강호정(부천심원고 1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시민과 함께 하는 幸福한 도시 구축'

김문원 의정부시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민선4기 의정부시장으로 취임해 시정을 이끌고 있는 김문원 시장(시인)이 취임 100일 동안 지난 3대 시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의정부시 건설의 기를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창의와 열정의 조지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로써 평가받고 보람찾는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의정부시의 조직이 활력이 넘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취임 후 15개동의 당면 현안사항과 시 관내 전지역을 방문, 민원 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복돋아주기 위해 각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함은 물론 공사현장도 방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원활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있다.

10월14일 막을 내린 제2회 회룡무용제와 동대항 체육대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한울문화

축제, 흥선문화축제, 청룡축제, 징검다리축제, 녹양평군마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시민회합을 유도하기 위해 의정부명물찌개거리음식축제와 불꽃축제, 각종 공연을 실시하고 특히, 시민들에게 평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저명한 강사를 초빙 시민자치대학과 여성사회교육 등을 개최 시민의 수준을 함양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시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이

전과 송신동사무소 신축이전 했으며 호원2동과 가흥1동, 가흥3동사무소를 신축 중에 있다.

특히 현재 신축중인 어린이도서관과 과학도서관의 경우 내년 개관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 시장은 "행복한 의정부시 건설은 물론 자랑스런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 건설을 위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부용천과 중랑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하고 어린이도서관과 과학도서관을 내년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의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자연친환경 녹색도시로 탈바꿈 ▶중랑천과 부용천 활용 방안 마련 ▶미군공여지 활용계획 추진 ▶장암동과 송산동을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 추진 ▶교통문제 해결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전국체전 경기도 선수단, 오로지 필승!'

김문수 경기도지사, 제87회 전국체전선수단결단식 격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전국체전 5연패를 향하는 선수단과 함께 필승을 외쳤다. 김지사는 12일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전선수단결단식'에서 체전 참가 선수단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경기도체육회장인 김지사는 선수 총감독인 김부회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단기를 전달하고,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사는 "오직 필승이다. 몸이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이겨낸 것도 오로지 필승을 위해서다"라며 "그간의 노고를 바탕으로 큰 영광을 안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격려했다.

이번 전국체전은 경북 김천과 일대에서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경기도선수단은 1,800여명이 참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전선수단결단식'에서 체전 참가 선수단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교통혼잡구간 개선 2천933억원 투입

경기도, 2008년까지 1천400여개 상습정체구간 해소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의 "막히는 곳 505개소를 뚫 뚫겠습니다"에 대한 교통 로드맵이 나왔다.

경기도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2천933억원을 투입,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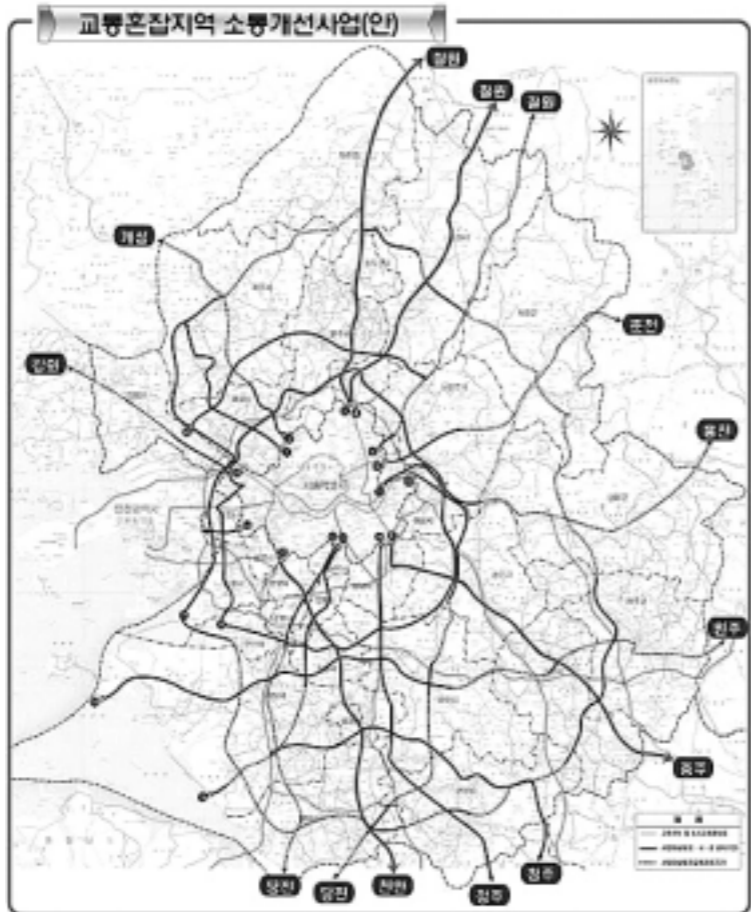
지난 2004년 전국의 교통혼잡비용은 23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2.97%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 2월 한국교통연구원 발표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모두 11조9658억원으로 전체의 51.8%에 달했다.

이번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대해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통행속도 향상으로 교통혼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에 마친 경기북부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팔당대교 북단의 경우 36분 단축효과 및 년 442억원의 혼잡비용이 절감돼 개선전 817억원의 혼잡비용이 375억원으로 감소된다. 또한 지난 2003년 공사완료된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8개소에 대한 분석결과 사고발생률이 48%나 감소돼 개선사업 완료시 교통사고 발생률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이 사업 추진을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선 '점'이 아닌



'축' 개념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축'이란 주요 간선도로별로 신호체계,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출·퇴근 및 주말에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하나의 긴 구간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적은 예산으로 단기개선 사업을 통해 교통혼잡을 완화해서 도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즉, 교통시설의 투자계획에 있어 장기적이고 대단위 투자보다는 기

준 교통시설인 도로 및 시설의 운영, 대중교통, 주차, 사고예방 등을 단기에 저투자로 최대 활용 할 수 있는 교통기법인 교통체계개선(TSM :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이라 말할 수 있다.

경기도는 교통혼잡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1축에 70여개소의 교차로, 20개축 1천400여개소에 대해 기본적인 분류작업을 마치고 내년도에 추진할 5개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다.

제1축은 의정부시 장암동~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65km, 제2축은 의정부시 장암동~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55km, 제3축은 고양시 행주대교북단~남양주시 팔당대교남북단 63km, 제4축은 성남시 이수동여수C~이천시 장호원을 67km, 제5축은 수원시 세관사거리~평택시 팽성읍 59km 등 총 309km이다.

또한 고양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안산시, 부천시, 김포시, 화성시 등 경기도 전역의 나머지 15개축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08년 도까지 소통개선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올해 설계비 33억, 2007년 공사비 및 설계비로 790억원, 2008년 공사비 2천100억원, 2009년 모니터링비 10억원 등 총 2천93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설계비는 전액 도비로 충당하고 공사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이면도로와의 상충, 합·분류 최소화 등 접근관리, 신호체계개선 등 교차로 및 가로, 도로부속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안전, 노선 정류소 위치 및 비가림시설 개선 등 대중교통, 보행환경 및 주차, 실시간 신호 제어 시스템체계를 구축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이다.

사업 추진은 경기도에서 직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시설공사는 해당 시·군별로 추진하며, 설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해당경찰서, 지역주민 등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모니터링(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 및 시·군에 교통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경기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도는 현재 교통혼잡개선과 내에 교통개선담당을 1담당, 2담당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6년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

의정부경찰서 전직원 솔선수범 헌혈 나서

의정부경찰서(서장 허남석)는 10월17일 2006년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헌혈인구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헌혈의 이해부족 및 기피현상으로 선진 국가들에 비해 크게 혈액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부경찰서는 국민들에게

도움주는 봉사경찰상 구현을 위해 헌혈운동에 동참하게 됐다.

이날 허남석 의정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경찰서 전직원과 함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경찰이 되도록 노력하여 즐거운 의정부경찰, 평온한 의정부치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민 굿하고, 핵 만드는 북, 용서 안돼"

김문수 경기도지사, 북부기우회에서 밝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월10일 의정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북부기우회에서 북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수도권 규제 해제를 통해 경제 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삶이 없는 죽음의 땅에 권력이 자기 국민들을 굶여 죽이면서 핵을 만드는 북한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유엔의 판단"이라며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맞춰 자기 국민들을 굶여 죽이면서 핵무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김지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를 두고 "실정을 끈으로 묶고, 저 손발 끝엔 피가 많이 갈라졌고, 이러한 망측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실정이 깨져 가는 데 균형발전을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균형사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사는 이어 북핵실험과 관련해 "아무쪼록 우리 북부지역에 악조건"이라며 "북한의 핵폭풍이 물러오는 악조건 속에서 정신을 차리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



신 박바로 차리면 곱감을 뺏어 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분단의 최대 피해지역인 북부부터 시작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기업에는 밝은 미래, 실직자에게는 희망을'

의정부시 취업박람회 11월6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시는 실업자와 신규 청년 실업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자에게 직접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신속하고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의정부권 취업박람회를 11월6일 80여

개의 기업체와 1천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의정부시가 단독으로 주최하며 동두천과 양주, 포천, 연천 및 인근 서울의 80여개

기업체와 1천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기업체와 1천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기업체와 1천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기업체와 1천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